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특별생방송 희망창조 코리아 웃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주말연속극 〈부탁해요, 엄마〉(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횡단 올드보이가 간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재)	00 MBC 정오뉴스 20 앙코르 2015 DMC 페스티벌 드라마뮤직 콘서트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2		00 이웃집 찰스 55 세계인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특선다큐 〈세계대전〉(재)	00 리얼스토리 눈(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도정질의
3	00 직언직설	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미니미니(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 천자문 40 헬로키즈 싸이걸스	
4	20 쾌도난마	10 코리아 생명의 희망을 심다	00 TV 유치원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55 500회 기획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 생활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2015 KBS대기획 넥스트 휴먼	00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하늘 길을 잡아라, 공항 전쟁	10 해피 투게더	15 2015 DMC 페스티벌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5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재)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딩동댕 유치원 2
08:30 두다다쿵
08:40 딩동댕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곤
14:30 캐니멀
14:50 빼삐에 친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출동 슈퍼윙스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내 친구 아서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45 스쿨랜드
18:5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갤럭시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태평양의 푸른 낙원, 뉴칼레도니아〉
21:30 한국기행 〈서해섬을 만나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알짜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확률과 통계〉
02:30 〃 〈기하와 벡터〉
03:20 〃 〈수학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 I〉
06:00 〃 〈지구과학 I〉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9:10 〃 〈이은주의 수학II〉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B〉
11:00 〃 〈수학 I B〉
12:15 올림포스 〈국어II-알짜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14:50 올림포스 〈확률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16:30 〃 〈수학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8:10 2016 N제 〈수학B〉
19:20 〃 〈세계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20:50 2016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21:50 〃 〈문학 B형〉
22:30 박봄의 이슈로 만성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 강좌
08:3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중학 〈국어(1)(2)〉
09:50 〃 〈영어1〉
10:30 〃 〈도덕 2〉
11:10 〃 〈국어(3)(4)〉
11:50 〃 〈영어 2〉
12:30 EBS 특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13:10 중학 중·기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2〉
13:50 〃 〈사회 2-2〉
14:30 〃 〈역사 1-2〉
15:10 어휘랑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15:20 만점왕 〈과학 3-2〉
15:50 〃 〈과학 4-2〉
16:20 〃 〈과학 5-2〉
16:50 〃 〈과학 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6-2〉
17:50 다큐 오늘
18:00 TV중학 〈수학3(하)〉
18:40 〃 〈영어 3〉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20:00 EBS 인문학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0일(음 7월 28일 근丑)

子 48년생 참으로 난감하리라. 60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면 술술 풀리겠다. 72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다. 84년생 초기에서 승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55, 78

丑 49년생 쌍방이 상호작용을 해야 오래 지속 될 것이다. 61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됐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73년생 이면의 가치까지 감안하는 게 용이하다. 85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15

寅 38년생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 50년생 생산성을 제고할 길이 보인다. 62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요구된다. 74년생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 86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7, 06

卯 39년생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51년생 국면을 이끄는 제반 장치가 필요하다. 63년생 사려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5년생 내실있게 진행되리라. 87년생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6, 80

辰 40년생 이뤄지길 바랬던 것에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상당한 충격이 자극을 줄 것이다. 64년생 좋은 길로 연결될 양상이다. 76년생 액면 그대로면 족하다. 행운의 숫자 : 08, 26

巳 41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3년생 작정했던 것을 그대로 모색하면 틀림없이 유리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65년생 수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겠다. 77년생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50

午 42년생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54년생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8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자. 행운의 숫자 : 91, 65

未 43년생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확실히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55년생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67년생 미치는 파장이 대단할 것이다. 79년생 실속은 없고 겉보기만 좋겠다. 행운의 숫자 : 70, 94

申 44년생 경향과 치밀함에 따라 성취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56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안게 된다. 68년생 달라지고 있느니라. 80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2, 30

酉 45년생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니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57년생 잡다한 것에 개의치 말고 핵심에 매진하자. 69년생 기초가 부실하면 극한 상황에 놓인다. 81년생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44

戌 46년생 원래부터 관련없는 것이었느니라. 58년생 일관성이 있어야 유익한 성과를 얻는다. 70년생 지난날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2년생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겠다. 행운의 숫자 : 59, 77

亥 47년생 추구하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59년생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71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집중할 시기다. 83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행운의 숫자 : 23,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영화 '성난 변호사' 변호성 役 이선균

목사 설교·토크쇼 보면서 설득 연습

"이번 영화에선 짜증 안냈어요 에이스에서 '에이씨 변호사' 정도?"

TV드라마 '파스타'에서 '버럭 셰프'로 큰 인기를 누린 이래 까칠한 매력의 역할을 주로 맡은 배우 이선균(40)이 새 영화 '성난 변호사'로 돌아온다.

이선균은 9일 오전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파스타 때부터 '버럭'을 너무 많이 해서 보는 분이 짜증 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제목부터 '성난 변호사'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며 "에이스 변호사 역할인데 곤경을 겪으며 '에이씨 변호사'가 되는 정도"라고 농쳤다.

이 영화는 유능한 변호사 변호성이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물이다. 변 변호사와 맞서는 검사 역을 김고은이, 변호사를 돕는 사무장 역할을 임원희가 맡았다.

이선균은 "법정영화라면 보통 무겁고 딱딱하지만, 이 영화는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고 경쾌하게 '쫙' 달려가는 느낌이 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정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래서 해보고 싶었다"며 "한국에서 나온 법정영화를 다 보고 실제 법정에도 가보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직업군을 참고하려 교회 목사 설교, 토크쇼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검사 역을 맡아 최근 맡은 영화 중 '가장 깨끗한 옷'을 입은 김고은은 "이번 영화는 흙칠이나 피칠을 처음으로 한번도 안 했고 많이 뛰지도 않았다"며 웃었다.

그는 앞서 '몬스터', '차이나타운', '협녀, 칼의 기억'에서 바닥을 구르는 액션을 했다.

촬영 중에 이선균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연기한 김고은은 "그동안 때리고 맞는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딱 한 번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소리는 컸지만, 선배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선균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리허설도 했고 여러 차례 맞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어 "연기할 때 '잘 받는 배우'가 있고 '잘 주는 배우'가 있는데 김고은은 상대 배우에게 리액션이 잘 나오게끔 잘 주는 배우"라고 칭찬했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이번 영화를 연출한 허종호 감독은 이선균과 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라고 소개했다.

이선균은 허 감독을 향해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촉망받는 감독이었다"며 "이제까지 따로 일하며 각자 자리매김했기에 기회가 왔을 때 같이 해보고 싶었고 시나리오가 좋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허 감독도 "배우로도, 개인으로도 이선균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라며 "감독이 글로 표현한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배우이기에 늘 같이 하고 싶었다"고 화답했다.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레드벨벳' 첫 정규앨범 '더 레드'로 컴백

"확실히 데뷔 때보다는 활동을 즐기게 돼요. 데뷔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복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즐기면서 노래하고 싶어요."(웬디)

SM엔터테인먼트의 막내 걸그룹 '레드벨벳'(웬디·아이린·슬기·조이·예리)이 첫 정규앨범 '더 레드'(The Red)를 내놨다.

레드벨벳은 지난해 8월 데뷔해 첫번째 싱글 '행복'(Happiness)과 두번째 싱글 '비 내추럴'(Be Natural)로 연말 주요 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다. 올해 3월에는 멤버 예리를 영입해 첫 미니앨범 '아이스크림 케이크'(Ice Cream Cake)를 내고 국내외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멤버들은 이후에도 음악방송 MC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레드벨벳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홀에서 '더 레드' 프리뷰를 열었다.

조이는 "지난 1년은 저희가 무엇이 부족한지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첫 정규앨범인 만큼 준비를 많이 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웬디는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우리의 바람은 1위를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게 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타이틀곡인 '덤덤'(Dumb Dumb)은 중독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팝 댄스곡으로, 영국의 작곡가팀 런던 노이즈(LDN Noise)가 작업했다. 이 밖에도 '허프 앤 퍼프'(Huff n Puff), '캠프파이어'(Campfire), '레드 드레스'(Red Dress) 등 빨간색을 연상시키는 곡들이 앨범에 실렸다.

웬디는 "강렬한 레드와 여성스러운 벨벳 이미지 사이에서 밝은 레드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며 "'덤덤'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마네킹처럼 바보가 되는 귀여운 소녀의 모습을 담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덤덤' 뮤직비디오도 처음 공개됐다. 오는 11월 입대하는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후배 레드벨벳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간식차량를 보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멤버들은 "힘을 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었다"며 "최강창민 선배뿐 아니라 많은 선배가 마주칠 때마다 조언이나 모니터링을 해준다"고 고마워했다.

레드벨벳에게는 국내 최정상 걸그룹 소녀시대의 동생 그룹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현재 '라이언 하트'(Lion Heart)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소녀시대 선배들에 대해 물었다.

슬기는 "저도 소녀시대 선배들처럼 여유롭게 노래하고 싶다"며 "선배들 무대를 보며 저희도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무대를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이린, 예리는 공백기 동안 음악 방송 MC를 맡았다. 이들은 다른 가수의 무대를 보며 표현, 퍼포먼스를 배울 수 있었다며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금 참 뿌듯하고, 떨리고, 설레요. 고민도 많이 했고, 저를 돌아보기도 했죠.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조이)

/연합뉴스